



“회원 기대 부응과 국민 신뢰 회복, 의협의 새로운 목표”

대한의사협회
노 환규 회장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열린 2012년 3월 25일 노환규 회장은 모두의 여상을 뛰어넘고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의료계의 ‘변화’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라고 모두가 입 모아 말했다. 2년 6개월여 전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의사사회에 등장해 의료계에 신선한 방향을 일으켜왔던 노환규 회장 그가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의사사회에 던지게 될 ‘변화’는 무엇일까? 5월 2일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봤다. <권해미 기자>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1,430표 중 839표(58.7%)를 얻어 당선된 노환규 회장.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했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 노환규 회장은 “회원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형용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동시에 이제는 회원들의 뜻을 제도권 안에서 주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겠다는 설렘도 가졌다”고 소회했다. 회원들의 기대와 지지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법도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노환규 회장은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회원들에게 똑같은 최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목표하는 변혁은 모든 의사들의 동참이 없으면 그것이 집행부든 회원이든 일부의 노력으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번 선거에서도 후보자인 제가 직접 뛰어다니지 않고 회원들에게 ‘여러분이 제가 회

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뛰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들의 과제는 저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므로 모두 동참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은 모두가 미래를 위해 동참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전의총 대표와 대한의사협회장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의단체 대표와 정식 대표단체의 대표라는 차이”라며 “발언과 입장표명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예전만큼 표현과 의사결정과정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 예전에는 협회를 움직이기 위해 아우성을 쳐야했는데 지금은 협회 안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에 책임과 동시에 행복감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회원들의 뜻을 살피고 대변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계 후퇴는 아마추어리즘 때문

하지만 전의총에서의 과거행동,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2000년 의료계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 고통의 근본원인은 그 이전부터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의료대란을 겪게 됐다”며 “200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속돼 왔던 의료계의 후퇴 역시 모두 회무경험이 풍부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협회장을 하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저의 경험부족을 지적하는 분들께는 매

우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에서 의료계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마추어리즘에서 찾는다”며 “오랫동안 대한의사협회의 회부는 중앙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친목회의 역할에 집중돼 이에 따라 회무경험이 많은 분들은 국민과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대정부협상을 하는 분야에 오히려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 의료현안 산적·국민신뢰 회복 필요

노환규 회장은 전국 의사총연합 대표로만 잘 알려져 있지만 2년 동안 시민단체의 대표를 역임하고 10년 동안 병원을 경영한 적이 있으며 전문 리더십 교육을 1년 동안 받은 바 있다.

그는 “국민과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전략과 전술, 조직관리, 마케팅, 그리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해까지 협회장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을 배웠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협, 새로운 의사들의 조직,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회무경험에 대해서는 여러 부회장님 등 회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하고 복잡한 회무를 익힐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노환규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중요한 의료현안이 산적해있는 까닭.

그는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현재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 방안은 실효화시키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보건복지부와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도 제도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독소조항이 많으니 이를 시정할 수정법안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의 시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비를 더욱 줄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이 찬성한다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국민이나 의료계의 동의 없이 강제시행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안에 반대를 외치다보니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한다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비난도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와의 공식 소통은 정부가 피하고 있으며 물밑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비춰지는 이유는 우연의 일치지만 저의 취임에 맞춰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제도들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의 비난은 대국민 설득 강화로 바뀌 나갈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제도들이 하나 같이 국민에게 궁극적인 피해가 가는 제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짓여론에 밀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두고 꾸준히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그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민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전문지식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의 불신을 낳고 2000년 의료대란 이후 정부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의사 불신을 조장한 결과”라며 “앞으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는 집행부 될 것

노환규 회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변화된 의협,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협의 모습이다.

그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집행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집행부, 회원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는 집행부를 만들 것이고 이러한 뜻에 동참하는 분들을 37대 집행부에 모셨다”며 “보다 역동적이고 전문적이며 헌신적인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사단체, 진료현장에서 숭고한 의업을 행할 때에 의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의사가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MP저널